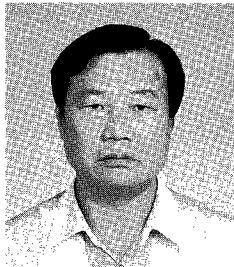


# 위생적이고 고부가가치 계란생산에 더 큰 관심을



이 문 삼  
전북지부 채란분과위원장

**최** 근 난가가 고가를 유지하면서 희망을 잃어가던 우리들에게 다소나마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한 달여동안 계란값이 고가를 유지하다보니 그동안의 적자를 만회하려는데 급급한 나머지 일부에서는 상품성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 계란을 판매하는 농가들이 있어 전체적인 양계인들

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계란 한 개에 요구르트 한 병값, 오징어다리 한 개값 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외환위기로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지면서 소비위축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생산자들이 청결하고 위생적인 계란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그나마 식탁에서 차지하고 있는 좁은 자리마저 내주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일수록 우리 생산자들이 소비자들을 소중한 내가족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십종의 기능란이 개발되어 판매되는 등 계란도 상품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소비가 감소하면서 2% 이상을 차지하던 기능란들이 판매가 줄면서 상품성을 잃어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 깨끗하고 위생적인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나라와 비교해 봄으로써 고부가가치 상품의 중요성을 점검해보았으면 한다. 표1은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계란품질 등급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외관검사에 의한 계란 품질기준을 보면 오란, 난각 요소에 대하여 각 나라가 모두 동일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투광검사 기준은 우리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현 수준에서 조금만 더 신경쓰면 선진국 수준에 도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웃 일본에서는 생산일자와 유효기간을 계

란에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계란을 구입할 수 있도록 농장들이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기능란이 우리나라 보다 많은 전체시장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상품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표1. 우리나라와 외국의 품질등급기준 비교

등급 품질	등급	미국 (특급)	EEC (특급)	일본 (특급)	한국 (특급)
외관검사	난각	깨끗하고 깨지지 않고 정상적인 난황	깨끗하고 깨지지 않고 정상적인 난황	깨끗하고 깨지지 않고 정상적인 난황	청결하고 상처가 없는 정상적인 난황
	투광검사	길이 3mm이하 위치가 고정됨	길이 6mm이 하	길이 4mm이 내	길이 4mm이내 위치고 일정할 것
	난백	맑고 투명 농후하며 난황을 중앙에 싸고 움직임이 적은 것	맑고 투명하며 견고한 성질 이물질이 없을 것	투명하고 견고할 것	투명하고 견고할 것
난황	난황이 어렵듯이 보이며 앞 중앙에 위치하고 이물질이 없을 것	윤곽이 흐릿하고 중앙에 위치하고 움직임이 적으며 이물질이 없을 것	중심에 위치하고 윤곽이 어렵듯하 며 결점이 없는것	중심에 위치하고 윤곽을 엷게 볼 수 있고 결점이 없는 것	
배아		알아볼 수 없을 정도			

계란의 상품성면에서 취약하기 쉬운 이때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위생적이고 고부가가치 계란 상품을 창출한다는 것은 곧 농장의 수입과 직결되는 것이다.

성적이 양호한 계군에서 1%의 산란율을 높이는 힘들어도 높은 계란값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1원의 계란값을 받는 것은 그리 힘들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계란값 1원을 더 받으면 산란율 5% 향상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계란값을 1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위생란과 기능란 등 진정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품란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일부에서 일반란을 포장만 그럴 듯 하게 하여 상품란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위생란이 아닌 단순히 포장란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을 살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감소를 조장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가족들에게 전달한다는 생각으로 깨끗하고 청결하게 생산, 포장된 계란만이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진정한 상품란인 것이다.

또한 모든 채란인들이 해결해야할 당면 문제 중 가금티푸스 등 질병예방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건강한 닭에서 생산된 계란이 약한 닭에서 생산된 계란보다 품질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농장의 여건을 청정하게 유지시키는 것도 우리 사양기들이 반드시 이루어야할 문제인 것이다.

IMF시대를 보내면서 소홀해지기 쉬운 계란의 품질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은 물론 농가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한층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본다. **양계**